

기 도 인 도 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매 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한 치의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 송 다 같 이

1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숨씨 깊도다
2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별 밤 하늘 빛난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산에 부는 바람과 잔 진한 사넛물
그 소리기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 이

성묘예배순서

- 예식사 (인도자) :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씨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신앙고백 (다같이)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 찬 송 (다같이) :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성경봉독 : 욥기 7:1-10
- 권면과 위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먼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인생 고백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인생을 교훈 받아 봅시다.

첫째,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욥은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고 고백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전쟁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출근하여 일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이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인생과 같이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엡6:12).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 해서 인생 전쟁에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인생은 벼들의 복과 같다고 합니다.

"나의 날은 벼들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 구나"고 했습니다. 여기서 벼들의 복이란 벼를 찌는 벼들에 딸린 부속품의 하나로, 숙련된 아낙들은 벼를 복을 재빨리 낱줄 사이에 넣고 지나게 해서 섬유를 만들어 냅니다. 욥은 인생을 마치 벼들의 복과 같이 빠르게 꽃처럼 쉽게 시들고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생은 벼들의 복처럼 신속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봄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가운데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아껴 쓰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인생은 구름이 사라짐 같다고 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구름에 비유해 노래했습니다.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구름처럼 인생이 태어나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름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보람된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찬 송 (다같이) : 1장
- 주기도문 (다같이)



- 예배순서 -

목 도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송가 301장

찬 송 다 같 이

1절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헤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 주님 다시 뵈옵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 시 교 독 감사절 다 같 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회 중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 중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회 중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드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회 중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집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회 중 : 여호와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형제, 일가친척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136:1~9 인 도 자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 씀 감사의 명절 인 도 자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즈노 씨는 세상에서 참혹한 불구자입니다. 어린나이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물론 글도 쓸 수 없습니다. 그가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반짝이는 것뿐입니다. 그가 작품으로 발표한 시는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협조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가 시를 쓸 때에는 그의 어머니가 일본어 50자표를 걸어 두고 막대기로 한 자씩 짚어 내려가다가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자가 집히면 그의 눈이 유난히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글자를 백지에 써두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다음 글자를 쓰는 식으로 미즈노 씨의 마음에 있는 시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두 사람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미즈노 씨는 고통 속에서 창작한 시집을 세상에 발표했는데, 그 시가 일본 문단의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며, NHK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즈노 씨의 시집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12:9)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미즈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부족할 터인데 말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미즈노 씨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는 계속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주신 것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면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36편은 다시 한 번 우리 인생에서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때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때론 실패와 좌절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우리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해 우리 가족 모두 한 치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인이 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붙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바라는 것은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 번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